

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10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08호

나눔 씨앗, 희망 꽃 피우는 '나눔대축제'

오는 22일 제주시 탐동광장 일대서... 다양한 나눔문화 프로그램 마련

'나눔의 씨앗으로 희망을 꽃피우는' 2016 제주나눔대축제가 제주시 탐동광장 일대에서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 더희망제주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도민들에게 나눔과 기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다.

축제에는 나눔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주요 행사로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쌀, 양말, 라면 등의 물품을 마련해 함께 포장해 보내는 프로그램인 '나눔상자 만들

기'와 도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책을 무료로 나눠 주는 책나눔 및 기부행사인 '나눔도서관', 나눔을 주제로 한 그림을 직접 그리고 배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나눔배지 만들기', 1년 후 나에게 받아보는 엽서쓰기 '나눔우체국' 등이 진행된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으로 열리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도 마련돼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나눔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책과 의류, 생활용품 등은 행사 당일에도 기부할 수 있다.

기념식에서는 나눔문화 확산에 묵묵히 노력해 온 분들

을 위한 '나눔 유공자 표창 수여식',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오는 기업들의 후원금 전달 및 물품 기탁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축제에는 약 40여개의 사회복지시설·단체, 기업체, 자생조직들이 참여해 나눔과 기부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치환 회장은 "제주지역의 나눔·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4회째 축제를 준비해 오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즐겁게 배우니, 이해가 쪽쪽!” 지난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이 주최한 '스마일 패밀리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장애이해교육' 뜻을 들으 밝게 웃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애가정 내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지지체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혜성(봉사부문)·전정숙(경제인부문) 씨 제37회 김만덕상 수상자에 선정

제37회 김만덕상 수상자에 봉사부문 전혜성(87세·미국 코네티컷주)씨와, 경제인부문 전정숙(91세·충청북도 증평읍)씨가 선정됐다.



전혜성씨



전정숙씨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김만덕상 심사위원회를 개최, 총 9명의 후보자의 공적사항 등을 심사한 결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전혜성 씨는 제주도 학생들이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광림·전혜성 박사 장학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해녀 관련 논문으로 제주해녀를 전 세계에 알렸고, 김만덕의 생애를 예일대 등의 대학교 여성학 교재에 포함시키는 등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0년 간 한국학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부터 미국 중·고등학교 교재에

한국문화와 역사, 제주 4·3사건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제인 부문에 선정된 전정숙 씨는 장애인인 남편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뜨개질, 화장품 대리점 등을 경영하면서 모은 12억 상당의 재산을 충북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2015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 3억원 상당의 건물까지 충북대에 기증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자원봉사활동 7000시간을 돌파해 적십자사로부터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포괄간호서비스 전국 최하위·간병서비스 확대 필요
- 기획 7면
시설탐방(8) -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제주청소년 지도자 대회 시민화관서 열려
- 특집 8면
포토에세이-제17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더희망제주와 함께하는

2016 제주 나눔 대축제

10.22 (토) 11:00~17:00
제주시 탐동광장

주최 /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실천행사
나눔상자 만들기(14:30~15:30)

상설부스운영
나눔체험마당, 나눔홍보마당,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나눔도서관(도서기부, 교환, 무료배부 등)

부대행사코너
1년후 받아보는 희망엽서 쓰기, 캘리그래피 익히기, 캐리커처 그려주기, 나눔카페 운영 등

나눔공연
오카리나 / 양우준 • 우쿨렐레 / 알렘우쿨 / 와들락밴드
국악 / 한얼 • 앙상블 / 교대부초
소리나눔 / 휴피리 / 해피밴드 / 폴밴드 / 실버밴드
전자현악 / 바이올렛 • 성악 / 양호진
판소리 / 양지은 • 밴드 / when / 남녕고 비상
댄스팀 / 중앙여고 제스트 / 중양고 발레타인크루

2016 제주 나눔 대축제는 비영리재능기부단체 '더희망제주'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나눔활동으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포괄간호서비스 전국 최하위... 간병서비스 확대 필요

지난달 8일 제주도의회 제 34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4차 회의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천문(새누리당) 의원은 제주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전국 최하위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병의 어려움으로 환자와 간병인이 함께 자살하는 ‘간병자살’ 이 사회문제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제주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국 최하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또 “장애인, 노인, 수급자들의 경우 간병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려운 처지인데, 이들을 위한 간병비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희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인력의 부족에

있다”며 “현재 서귀포의료원이 45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제주의료원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기준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제한되는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기준이 올해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이만 새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꿨다”며 “이로 인해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실제 서비스가 필요 가정은 이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만 다닌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용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포괄간호서비스란?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인이나 보호자 대신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45회 임시회가 지난달 8일 열렸다.



장애인 기능대회서 값진 메달 획득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열린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제주선수단 정진택(45세 지체3급,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씨가 컴퓨터 수리, 한상찬(57세 청각1급, 제주도농아인협회) 씨가 나전칠기 종목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지부장 부형중)는 지난달 23일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마치고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선수

단 해단식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최로 열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354인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선수 12명과 단장, 임원, 수화통역사 등 8명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최신 산업동향을 반영해 메카트로닉스, 바리스타 등의 직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함께 열렸다.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대상 정서지지 프로그램 운영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박춘근)는 제주 거주 만 65세 이상 청각장애 어르신 대상으로 정서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개의 프로그램(전통음식 체험, 게이트볼교실, 전통공예체험, 제과교실, 천연염색, 댄스교실, 문화소통 힐링여행)으로 구성된 사업은 그동안 소외 받던 청각장애 어르신에게 배움과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호응



을 얻고 있다.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 어르신을 위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사회에서 소외되는 청각장애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협약 체결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 사진 왼쪽)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인권강사단(대표 신강협, 사진 오른쪽)과 지난 달 12일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혜재활원과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인권강사단은 시설거주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해, 당사자들

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제주인권강사단 신강협 대표는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인권센터 소속 제주인권강사단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



용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58@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 가장 맛있는 나눔" 9월 기탁 현황

- ▲금강산산유통=수산물 28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140kg ▲김치원=김치 20kg ▲꽃비나리는뜨락=떡 154개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161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3,175 ▲마켓개인기부자=쌀 20kg ▲모양=제과류 45개 ▲빠라빠빵=빵류 140봉 ▲서문식품=두부 548모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 1,023개 ▲암암영농조합법인=빵 40봉 ▲유진상사=오뚜기식품류 1,586개 ▲이든이네=건멸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21봉 ▲제주보리촌=보리빵 620개 ▲갯어클락=식빵 31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주방세제 79L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234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 후원금수입 | 후원금 사용액 |
|---------|-----------|-----------|
| 재가결연후원 | 640,000 | 0 |
| 난치병환아후원 | 60,000 | 0 |
| 자원봉사후원 | 250,000 | 250,000 |
| 복지사업후원 | 970,000 | 5,906,430 |
| 푸드마켓후원 | 2,750,000 | 105,940 |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도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인문학 프로그램 ‘가족,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난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 이하 센터)는 제주시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족, 그리고 제주도」을 지난 6월 18일부터 4개월간 매주 토요일 10:00~12:00, 설문대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인문학 자체가 어렵고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족, 그리고 제주도’란 주제에 맞춘 그림서적과 다양한 작품 및 체험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다문화 가족들이 인문학 교훈과 인성덕목을 재밋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지난달 11일 제주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열린 전시·발표회 모습.

이 프로그램은 자녀 인격 형성의 시기에 올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 관계 향상으로 가족 간 소통 증진을 이뤄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제주어로 편찬된 그림책을 이용해 제주 문화를 쉽게 익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주도

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기획했다.

지난 9월 11일 제주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는 4개월에 걸친 프로그램 자료들을 이용해 「가족, 그리고 제주도」 전시 및 발표회가 열렸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프로그램 참여시 활동한 자료들을 모아 ‘우리 가족 책’을 제작했다.

“복지과제 함께 논의 합시다”

오는 17일 ‘제주복지 원탁회의’ 개최

‘우리가 풀어야 할 제주 사회복지 10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주복지 원탁회의’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 오리엔탈호텔 2층 한라홀에서 열린다.

‘제주복지 원탁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역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복지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된

다. 특히 논의에 따라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과 의회, 행정의 역할을 논의하며, 나아가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탁회의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제주 보건복지공동체포럼 소속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근무자(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다문화, 지역복지) 등 총 200여 명의 토론자가 참가한다.

회의 방식은 원탁 테이블에 모여 앉아 토론진행자(패널리테이터)를 중심으로 패널들이 함께 복지 현안과 대안 도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사회복지인 소통의 장 ‘바람소리홀’ 문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1층 소회의실이 도내 사회복지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도울 새로운 문화공간인 ‘바람소리홀’로 새롭게 태어났다.

도민과 사회복지인, 협의회 회원들의 소통과 섬의 공간으로 마련된 ‘바람소리홀’은 사회복지 가족들의 ‘바람’을 다양한 ‘소리’로 담아낸다는 뜻을 가진 곳이다.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바



람소리홀’에는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바람소리홀’은 각종 세미나, 토론회, 회의, 교육, 동아리 모임, 담소 나누기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바람소리홀’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치환 회장의 공약사항이었던 ‘회원 간 소통강화’의 실천을 위해 추진되었다.

추석 명절 맞아 푸드뱅크에 따뜻한 손길 이어져

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기업들의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이어졌다.

제주농협행복나눔운동본부(공동본부장 강덕재·양용창)은 지난달 9일 제주광역푸드뱅크를 찾아 ‘사랑의 쌀’ 1200kg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제주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펼치고 있는 ‘행복나눔운동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 농협행복나눔운동본부(왼쪽)와 시와월드(오른쪽)의 물품기부 사진.

또한 지난달 2일 (주)시와월드(대표 우영진)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해 달라며 초콜릿 1000세트(1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주)시와월드는 지난 2014년부터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작은세상봉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역대 단장 등 100여명 참석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작은세상봉사단(단장 김정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3일 협의회 3층 삼다수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작은세상봉사단 조영희 4대 단장을 비롯한 역대 단장들과 원석철 연합봉사회장, 작은세상 봉사단원, 협의회 소속 봉사단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전 행사로는 ‘한라난타팀’의 난타공연과 ‘더희망제주 아이러브우쿨팀’의 우쿨렐레 연주가 펼쳐졌다.

또한 기념식에는 기념사 및 격려사와 함께 작은세

상봉사단의 30년간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PPT 영상, 모범자원봉사상(도지사상: 김정심 단장, 도의회의장상: 허향숙 부단장, 제주시장상: 정근선 부단장, 협의회장상: 이데레사) 수여식도 진행됐다. 또한 작은세상봉사단이 꾸준히 봉사를 펼치고 있는 성이시돌 영양원과 케어하우스에서도 찾아와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기념식장 한편에는 작은세상봉사단이 직접 만든 회보 「작은세상」과 봉사활동 모습을 담은 활동앨범, 봉사단원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작은세상봉사단 역사관’도 운영했다.

‘제주청소년 지도자 대회’ 시민회관서 열려

청소년지도자의 다짐, 청소년지도자 단합체육대회 등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지난달 19일 제주 시민회관에서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소속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제주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2016 제주청소년지도자대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공무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들과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진 청렴감찰관의 청탁



▲ 지난달 19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자대회 기념촬영 모습.

금지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의 다짐, 청소년지도자단합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공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수상자에게는 △강광자(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경순(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승도(성이시돌젊음의집) △허진(제주시청소년수련관) 지도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항공, 짬(JJiM) 프로모션 장학금 전달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은 지난달 1일 ‘짬(JJiM) 프로모션’ 매출의 일부를 적립해 마련한 장학금 1000여 만원을 제주보육원(원장 강지영)에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이 2007년부터 진행해 온 영어수업 참여 학생 가운데 올해 대학에 입학한 3명에게 주어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착한 여행, 착한가격’을 테마로 진행한 항공권 판매에 보여준 이용자의 관심이 모여 희



▲ 제주항공 임직원들이 제주보육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망을 줄 수 있는 장학금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도내 어린이를 위한 학습지원 등의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아이와의 소통, 이제 기대감이 생겼어요!”

부모교육 특강 실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지난달 12일 이도초등학교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기법’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초록우산 부모교육은 부모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 지난달 12일 김민희 강사가 이도초에서 ‘부모교육 특강’을 열고 있다.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줄이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김민희(구남동)는 “평상

시 쓰는 언어 속에 잔소리가 많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제대로 내 마음을 표현한다면 아이와의 대화가 좀 더 원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참가 및 부모연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자녀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32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참가 및 부모연수’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대회’는 전국의 장애인부모, 장애관

련단체, 복지정책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논하고 부모들의 양육노고를 위로·격려하는 자리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장애인부모회는 연수활동으로 대구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며 역량강화를 도모했다.



‘멘토-멘티 만남의 날’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10일 스튜디오 ‘담음’에서 위탁 아동 및 학습멘토 20여명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인절미쿠키 등을 만들어보는 요리체험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서로 이

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위탁아동들의 기초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멘토링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노조절 프로젝트 ‘피노키오’ 설명회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제주사랑의열매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는 ‘피노키오’ 사업설명회를 지난달 19일에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심리·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

소년들의 자기표현능력강화를 통한 분노조절을 지원하고 가족지지체계를 구현하고자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소시오 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음악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등으로 구성됐다.

소/식/마/당

추석 맞이 명절 행사 진행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회(대표이사 임말시아)는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지적장애인시설 뽀엘 및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마리아의집 거주인들 대상으로 지난달 15일 '2016 추석맞이 명절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에 각 가정 방문하지 못한 거주인들을 위해 송편 빚기, 전통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리도 돕고 살아요'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시설 관내 및 서귀포지역 장애독거노인 11명을 찾아 직접 준비한 선물(생필품, 쌀,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우리도 베풀 수 있다'는 나눔의 자긍심이 배양되고 이웃을 도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헤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10일 주식회사 제이피엠·해진이엔씨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제이피엠 사랑나누기"라는 슬로건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건물 바닥 청소 및 코팅, 주변 예초작업 등의 봉사활동 후, 한가위를 맞아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해 이용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줬다.

'더불어 사는 삶' 노인당 봉사활동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7일 유수암 노인당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사회 연계활동으로 이용 어르신께 위문품 전달 및 안마,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금자 원장은 "지역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진 활동이었다"며 "지역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도원 뽀엘, 난타 제주 공연 관람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뽀엘(원장 임주리)은 지난 8월 30일 제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난타-제주'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 관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난타 두드림' 프로그램 일환이다. 임 원장은 "이용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난타 연습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 관람이 프로그램 진행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우리가족'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난 9월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우리가족을 개강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이 동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 정돈도 점검 및 위기상황 대처 능력 강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놀이 쉬멍' 행복한 인지·놀이 치료



주사랑소규모요양원(원장 한영희)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보호어르신 20여명에게 '놀이 쉬멍 행복한 어르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지·놀이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 회복을 돕고 미술, 공예, 원예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어르신 기능회복 훈련 실시



제광원(원장 신성조)은 어르신을 위한 기능회복훈련 '나누는 기쁨, 행복한 노후' 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제광원은 와상어르신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음에 따라, 음악과 웃음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음악힐링(음악치료), 다리와 발부종으로 고통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안마 및 발마사지, 웃음재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버케어 미술치료 활동 실시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장 강미경)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가 지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부금사업으로 실버케어 미술치료활동을 실시했다.

시설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미술치료 활동은 '아름답고 행복한 마무리'를 주제로 열렸다. 지난 8월 29일 아노제마당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으로 작은전시회도 열었다.

지역아동, 마사회 지원 서울나들이



함덕지역아동센터(센터장 명혜숙)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후원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센터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센터 아동들은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청와대, 롯데월드, 한강유람선 등을 방문했다. 비행기와 지하철을 처음 타본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매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풍물교실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원장 진유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주 1회 신명나는 우리가락 '혼디모영 풍물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축제 등에 참여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진 원장은 "프로그램 효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오고 있으며, 자신감, 사회성 향상의 효과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설 이용인 대상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즐길거리(권리) 찾아, 우리권리 찾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인이 경험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또한 이용인들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시론

내리사랑과 치사랑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그리고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민족고유의 정신으로 자리잡아 어느 것보다 '효'의 가치가 중시되었다.

그런 반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치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 '내리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

그럼 왜 치사랑은 없다고 할까? 아마 사랑이라는 게 흐르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노인공경 희박해 지고 있어

그래서일까? 오늘날 전통윤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하였던 전통사회의 모습과 생활방식

이 변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과 효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아울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는 1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건)가 증가했다. 우리 제주 역시 신고는 125건으로 전년 109건 대비 16건이 증가(14.7%)했으며 실제 학대 건은 72건이었다.

부모나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면서 노인학대와 그에 따른 신고도 많아졌지만,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14. 10월)와 경로당 학대노인 지킴이집 운영,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내년 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학대예방 및 피

해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

효는 사람됨의 근간이며 사랑의 기초이다. 치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사로 여기거나 자녀 등 가족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려하기 보다는 전 국민적인 인식 변화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자 으뜸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치사랑을 행함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나용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기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행복지수



성현숙
이도2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행복에 관한 생각을 하던 중에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다'라는 부제를 가진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를 읽었다.

1970년 중반 전세계가 양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에 국민총생산(GNP)이 아닌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개념을 발안하고 국가 의제로 선택한 것이 새로웠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시행방안으로 무리한 개발은 하지 않는다. 산업발전보다는 자연환경을 우선한다. 생활 속 전통문화를 지킨다.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가 GNH의 철학적 가치였다.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교육, 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활용, 문화적 다양성과 복원력, 좋은 정부, 공동체의 활력, 환경의 다양성과 복원력, 생활수준의 9개 3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 두 번째 희망과 자연환경보호, 세 번째 유형·무형 문화재의 보호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도 2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관협력, 자원관리 분야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동체의 역동적인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와도 상관관계수가 높다고 보여진다.

행복은 물질의 만족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간의 관계와 소통에서 비롯되며,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교류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도와 줄거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이 그런 공동체 일원이라는 생각이 마음의 의지가 되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이 아닐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행복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인적, 물적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복지의 핵심은 일상생활속에 녹아있으며, 다양한 지역성을 가진 공동체의 활력 넘치는 활동은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로 변시킬 것이다.

칼럼

건강검진

질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 일게다. 생애의 으뜸가치인 건강을 지키려고 식의요법과 운동에 무척 관심이 높아졌다. 건강은 환경과 기후,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 많은 변수가 있어 보양식과 운동만으로 지킬 수는 없다. 질병은 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수명은 의술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터.

현대의 의료관점은 발생한 질병의 효율적 치료에서, 발병 전에 미리 위험성을 확인하여 저항력을 키우는 예방의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신체의 건강상태를 점검,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예방의학의 중요수단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늦다. 첨단화 된 의술과 장비로도 중증으로 진행되면 치료가 어렵다.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질병 치료, 검진 통한 조기 발견이 '최선'

나는 짝수 해인 2014년 건강검진 통보가 왔으나, 전년 위 내시경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었으니 위 검사는 거를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검진을 받았는데 아뵐싸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1년 사이에 불현듯 발생한 위암. 쇼크를 넘어선 공포였다. 엄습하는 불안감에 식구들과 지인들의 잔영이 교차하며 무척 혼란스러운 상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행히 조기암이라고 한다. 극심한 불안 속에도 건강검진 덕분에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는 안도감으로 조금은 내면의 평온을 찾았다. "건강검진 덕분에 사선을 넘은 거야" 라고 되뇌며, 진단 후 한 달 만에 수술을 받았다.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거의 없는 복강경수술이다. 우리나라 의술에 나는 감탄했다. 항암치료는 안 해도 되고 식사조절만 잘하면 된단다.

이제 1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투병생활은 음식 조절과 매일 반복하는 운동이 전부다. 5년이 경과되어야 완쾌여부가 판단된다고 하니, 경과가 좋다.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된 셈이다. 과식과 과음, 흡연, 무절제했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투영된다. 건강검진이란 예방의학의 수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까. 시기를 일탈하여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었다면... 암을 조기발견, 극복 중에 있으니 건강검진제도에 찬사를 보낼 뿐.

건강을 위해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 본인과 가족, 국가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싶다.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시설탐방

(81)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랑·행복 신고 달려요”

심야시간 활동지원... 밤 12시까지 운영시간 확대
이용자 불편 줄이기 위한 임차택시 10월부터 운영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제정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의 관심은 미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에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2010년 사단법인 설립 후 5대의 차량을 갖고 이동지원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 이하 센터)의 탄생비화를 얘기하는 강 센터장의 말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애뜻함이 묻어있다.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타 도시와 달리 사단법인 설립을 고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모든 대상자들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2급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임산부,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보호자’가 해당한다.

지난 센터의 활동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이용횟수는 매년 증가해 2016년 54356건을 기록했다. 차량 또한 2014년까지 매해 증가해 현재 40대의 휠체어 특장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1,2급 장애인 등록현황 7742명에 따른 법정대수(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인 39대를 상회하는 수치다. 임산부를 이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차량 법정대수를 충족한 것은 센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를 만족하지 지역은 많지 않다.

센터는 최근 늘어나는 비휠체어교통약자 이용자 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를 활용한 임차택시 4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휠체어 및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에 대기시간 단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중무휴 07:00~22:00로 운영되던 이용시간은 병원 및 공항 이용자 등 심야시간 차량이 요구되는 교통약자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22일 부터 07:00~24:00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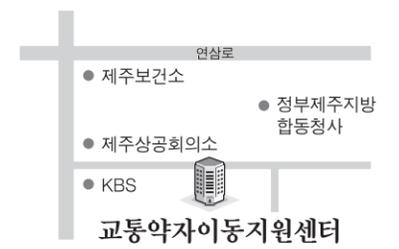
이용 요금은 최초 3km 기본요금 1000원이며 거리 500m당1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이는 일반택시 요금의 약 25% 수준이며 요금 상한제를 적용,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최대 요금은 8000원을 넘지 않는다.

투석치료를 위해 주 3회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김경자씨의 보호자(00, 구남동)는 “자가용을 이용하면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를 할 수 없어 힘들데 휠체어를 탄 채 이동할 수 있는 센터 차량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화를 받는 직원·운전기사

모두 친절히 대해줘 힘든 치료를 잘 받고 있다. 항상 고맙다”고 이용소감을 전했다.

센터 이용 방법은 콜센터(1899-6884), 인터넷 예약(www.jejuhappy.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교·출근·병원진료 등 오전 이른 시간(07:00~10:00) 이용이 필요할 때 1일전 예약전화(064-756-8277)를 이용해야 한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강 센터장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개선해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객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더욱 쾌적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5 상속 이야기(1)

얌미운 사위가 유일한 상속인?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며 너무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젊어서 부인과 사별한 A씨는 남들에게 구두쇠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평생 아끼

고 아껴 큰 재산을 모았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외동딸을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딸 B는 잘 자라 주었고 좋은 직장에 남부럽지 않게 결혼도 하여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 C와 성격차이가 있던 딸 B는 잦은 부부싸움 끝에 별거를 시작했고 그러던 중 말기 암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 A씨는 딸의 회복을 위해 많은 돈을 써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A씨의 사위이자 B의 남편이었던 C는 병원비커녕 병문안 한번 오질 않았

다. 안타깝게도 B는 곧 세상을 떠났고 보험금, 퇴직금을 비롯한 많은 재산을 남겼다.

◆내 맘같지 않은 ‘법정상속분’

A씨는 딸을 잃은 슬픔도 너무 컸지만 그보다 사위 C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C는 자기가 망인의 배우자라면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식이 없이 사망한 B의 경우 직계존속인 A와 배우자인 C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C가 A보다 50%를 더

많이 상속받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분이다. 따라서 B가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C의 몫이 인정된다.

◆민법이 말하는 ‘대습상속’

그런데 A씨를 괴롭게 하는 점이 더 있다. 바로 A씨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다른 아님 사위 C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은 민법의 ‘대습상속’ 때문에 일어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외동딸인 B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A씨가 사망하면 사위인 C가 법에 따라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대습상속 규정은 상속인이 가지는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런 경우의 사위까지 보호하는 법이 A씨에게는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

위 상황에서 C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면 A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도제70년, 제주특별자치도 10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30년



▲ 지난달 8일 제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제주복지, 도민의 삶에 날개를 달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성황’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제주복지, 도민의 삶에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지난달 8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시설·단체 종사자, 생활(이용)인, 자원봉사자, 도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은 비영리 재능기부 단체 ‘더희망제주’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며,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와 각계인사의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또한 김재경(서귀포시노인복지관) 신임 사회복지시설장과 문정순(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서현수(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강병철(제주시중장기청소년

쉼터) 신임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을 낭독 식도 진행됐다.

아울러 기념식의 마지막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손수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제주시 사라봉체육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가족 단체졸업기 대회’가 열렸다.



- ①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손수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② 비영리 재능기부단체 더희망제주의 ‘와들락밴드’가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 ③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16 사회복지가족 단체졸업기대회 참가팀 모습.
- ④ 2016 사회복지가족 단체졸업기 대회에는 총 19개팀 3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사회복지의 날 수상명단

표창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양정순(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회) △김성훈(사회복지 공무원) △한관용(재단법인 제주소아암재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순배(제주도립예술단 제주합창단) △김신애(다울복지재단) △박미선(무지개마을) △김정순(손뜻모아봉사회) △김상현(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김보라(제주시중장기청소년쉼터) △강인혜(제주케어하우스) △김연경(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창미(제주요양원) △박미숙(에덴노인복지센터)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양경희(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본상: 김인숙(제주시 건입동), 허봉심(서귀포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려상:

고선희(제주시 용담2동), 이선주(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오은미(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문정자(온누리봉사회) △제주보리촌 △고민일(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정승용(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선영(제주중학교) △임현숙(남원초등학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허철훈(제주시 아라1동) △제주요양원 백합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장 △박희정(작은세상봉사단) △다문화난타봉사회 △어우렁적십자봉사단

단체졸업기 수상팀 명단

▲우승 △신원 ▲준우승 △천사의집 ▲3위 △공생 ▲4위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모습